

구례군, '다시 구례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소멸위기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역할과 지속가능성' 주제 이두성 부군수 "일상서 문화예술·평생학습 누리는 환경 조성"

구례군과 지리산씨협동조합(대표 임현수)이 지난 3일 구례군청 대회의실에서 '다시 구례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의 회복력을 되찾기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의 방향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이 진단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이두성 구례군 부군수, 김송식 구례군 의원, 한장원 구례문화원장을 비롯한 군청 유관부서와

구례교육지원청, 문화예술 및 교육 관련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현수 지리산씨협동조합 대표가 주민들이 진단한 구례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정민통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은 '소멸위기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보다',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직무대행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지속성을 위한 조건'을 각각 발표했다.

지정도론으로 백현주 전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이 '관리에서 위태로, 다시 협치로', 최지만 삶지대연 구소 대표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

원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과 해결방법'을 발표 후 참석자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기초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고, 지역의 삶·가치와 연결된 계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 수요, 자원의 연구, 지역 인력 발굴·양성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민관협력 협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례군과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울



해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두성 부군수는 "기초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전체 삶의 격을 높이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선음식 교육 개강

내달 2일까지 총 5회...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곡성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하는 전문인력을 '약선음식' 과정을 개설해 지난 4일 개강식을 가졌다.

약선(藥膳)이란 약(藥)과 음식 선(膳)이 합쳐진 말로 약이 되는 음식을 뜻하며 한의학 기초이론에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을 접목한 것으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요즘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영양식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선음식 이론 및 실습으로 우리음식연구회원,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총 5회) 매주 수요일 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진행된다.

세부과정은 ▲약선의 정의와 특징 ▲약선음식 재료의 이해 ▲자연계와 인체의 오행속성 등의 이론 교육과 함께 지역의 농·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곡성=양혜영 기자

군민과 함께 만드는 담양 역사박물관

담양군,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자료 기탁·기증 접수 나서

담양군이 담양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자료의 기증·기탁 접수에 나섰다.

담양 역사박물관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집대상은 담양과 관련이 있는 전시 및 연구, 교육, 활용 가치가 있는 고고·민속·사건자료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교지·간찰·문집 등이 해당된다.

상시모집하며 기증·기탁 희망자는 담양군청 문화체육과로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유물은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증·기탁이 이뤄지며, 무상 조건이 원칙으로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수여, 기증명패 제작 및 기증·기탁유물 보존처리 등을 지원하며, 기증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될 때에는 기증자명 표시 등 예우를 받는다.

또한 소장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를 매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증·기탁된 유물은 전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화훼종묘분야 공모 선정... 사업비 10억원 확보

장성군이 화훼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화훼산업 분야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체 사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전남 유일 선정이다.

장성군은 '노란꽃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10억 송이 가을꽃을 감상

할 수 있는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기록하며,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왔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마을 자투리땅마다 조성한 게릴라정원이 소소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화훼 품종 연구

시설과 화훼 전문 육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이 갖춰지면 직접 생산한 종자 및 종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아가 국산 종자 채종·육묘사업을 추진해 외국 종자 구입 시 발생하는 특허권(로열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미달성지표 대책 논의

화순군은 5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 92개 평가지표(정량 65개·정성 27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지표의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평가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목표달성에 집중하는 한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김중갑 부군수는 "미달성 지표뿐만 아니라 정상 추진 지표라 하더라도 연말까지 방심하지 말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혁신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104개 지표 중 12개 지표의 평가를 유예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